

與최고위 ‘지선 책임론’ 충돌... ‘당권 경쟁’ 계파 갈등 고조

비당권파 “중도층·청년에 거부감”
친청계 “자책보다 이론 일 봐야”
鄭대표 “대통령 평가·인식 공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10일 6·3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선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간 당권 경쟁이 예상되면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계파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경고’ 지선 평가와 ‘정 대표 불참, 김 총리 참석’으로 뒷말을 낳은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여당 전대 국면이 복잡다단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당권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미완의 선거 승리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뼈격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며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생살을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선거 평가에 공감을 표하며 “지도부 모두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 (친정청래)계인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과도한 ‘대표 흔들기’를 경계하며 정 대표 염호에 나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판과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예뉘려 두둔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자책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해낸 일, 우리가 이루어 낸 일들을 꼼꼼히 되돌아 보는 자성과 다짐을 통

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일꾼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를 함부로 폄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그런 행태는 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새기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는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파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몸을 낮춘 인식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이겨야 하는 곳을 썼

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말해 정 대표와 인식 차를 보인 바 있다.

정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 불변한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계파간 신경전은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당권파인 민주당 이지는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출국 환송식에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불참했지만 김 총리는 참석하면서 당내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발언이 논란을 낳자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 대변인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정 대표도 윤석열과 이 대통령을 배제해 발언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 투표용지 축소 결정”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무총장·실장 전결 유권자비 60%→50%
부족 시 처리 절차 등 가이드라인 부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

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착실상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거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인 63.6%보다도 2.2%p 높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성동·양천구에 이어 4번째였다.

중앙선거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투표를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

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일에 투표용지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별 일련번호 기재, 추가 교부 매수 기준, 배부 절차 등이 없어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을 실기했다고 중앙선거위는 보고했다.

또한 6·3정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관리, 우편투표 접수, 개표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한 탓에 사전 발생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황전파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국힘 신임 원내대표 당권과 3선 정점식

당 쇄신·계파 갈등 극복 과제
張지도부 거취 문제 당면 현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총 투표수 108표 가운데 55표를 얻으며 48표를 얻은 김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3위를 기록한 3선 성일중(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1차 득표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 지역구를 둔 정 원내대표는 구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



류된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110석 제1야당을 이끄는 후반기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등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6·3 지방선거 패배로 확인된 민심에 따라 당 쇄신과 개혁에 나서야 하고, 이른바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이라 불리기도 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도 맡았다.

당면 현안으로는 원 구성 협상과 당 일각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제기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해법 도출이 첫 손에 꼽힌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